

2022.11.22. 소설호

<https://cyw.pe.kr> 햇별같은이야기

## 잠 안 오는 이유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운동을 하다 만난 분과 얘기를 하는데 “큰일났소. 대통령이라고 뽑아논 사람이 너무 엉터리인 기라요. 나라 말아먹는 건 시간 문제요. 난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쥐꼬리만한 연금도 깎아분다 안허요. 이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떻게 살지 생각 하면 밤에 잠이 안오요. 형씨는 안 그렇소?”

저는 그냥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속으로 ‘나는 연금 같은 것도 없는데

잠만 잘 옵디다.’) 할아버지,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는 ‘내세 걱정’부터 하셔야겠구먼요. 예수 이야기 말도 못 꺼내게 하지 마시고...

인생을 순간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길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순식간에 지나갈 뿐입니다. 정말로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면 5년 후에 다시 잘 뽑으면 되죠. 어찌면 5년까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뭐가 걱정이어요? ‘국민연금’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갈되도록 설계가 되어있어서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 대신 ‘국민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생겨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눠줄 것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로 긴긴 시간은 흐를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도 인간들이 편리에 의해서 만든 규칙에 불과합니다. 그 역겁의 세월 중에 겨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또 길어봤자 몇십년도 안 되는 ‘노년’ 걱정엔 잠이 안 온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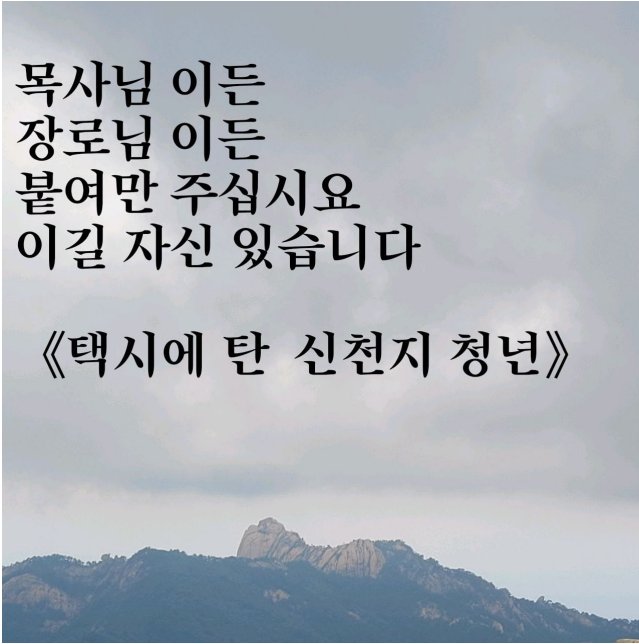
문제는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몇십년이 아니라 육체의 옷을 벗어야 하는 ‘영원’이 더 중요하죠.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영적으로 게으른 내 모습에 잠이 안 오는구만.



♥쌀쌀한 날씨에 겨울 점퍼를 꺼내고 있는 최용우 올립니다.

목사님 이든  
장로님 이든  
붙여만 주십시오  
이길 자신 있습니다

《택시에 탄 신천지 청년》



택시에 탄 젊은 신천지 젊은이는  
요즘 대구서 무슨 10만명 대회 때문인지  
더욱 침 튀기며 교회와 복음을 조롱하고

이 새벽 기쁨에 넘쳐야 할 주일 새벽에  
잠시 택시 갈 곳을 잃다.  
원망과 조롱이 된 귀한 복음 앞에  
한없이 슬프다.

-대전 택시 운전수 김만승

## 있는 그대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다가오는 것들을  
오는 그대로 맞이하기

떠나가는 것들을  
가는 그대로 떠나 보내기

얼마나 쉬운 일인가?  
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freedom is  
a state of mind.





## 회개3기 게으릅니다

격일제로 경비 일을 하기에 새벽기도회도 그나마 출근하는 날 이틀에 한 번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걸어가면 30분 넘게 걸리기에 새벽 운동 겸 새벽기도회의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시 20분 옷을 입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가랑비가 조용히 내립니다.

“에 - 이”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비 오는 날 안 갑니다.

바람 부는 날 안 갑니다.

몸이 무거우면 안 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비 맞고 가도 되고 차를 가지고 가도 되고 우산을 쓰고 가도 되는데 그냥 들어 왔습니다.

이른 새벽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벽 운동이 주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안일합니다. 태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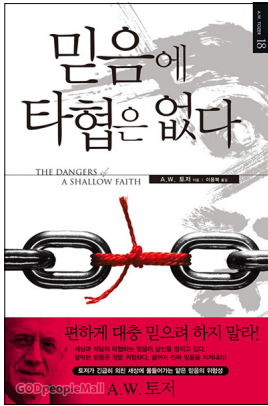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 믿음에 타협은 없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18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72쪽 13,000원 규장 2012

편하게 대충 믿으려 하지 말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당신을 망치고 있다.  
알파한 믿음은 정말 위험하다,  
끝까지 진짜 믿음을 지켜내라!

## 1. 종교적 껍데기를 버리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성경은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늘날 교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것은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할 뿐이다. 위대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영적 굶주림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찾아서 부흥을 일으키셨다. 오늘날 교회는 '바벨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외형적 쾌락에 빠져있다.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재미를 추구한다. 예배는 뒷전이고 공연이 판을 친다. 우리 조상들은 뜨겁게 예배한 사람들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렀다. 믿음의 조상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의지해서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 과거를 나침판으로 활용했다.

## 2.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지 말라

오늘날 기독교를 지배하는 숭배들 중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 보는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다. 교회의 취향은 세상의 취향보다 무한히 더 고상하고 고결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홀로 서 계신다. 그분은 세상을 모방하지 않으신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는 어설픈 시도는 그분의 방법이 아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은 모든 면에서 신약의 기준 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더 많이 따르고 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열광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삶의 유일한 목적이 그리스도였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유명인을 통해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긴다. 1.광고의 제단 2. 성공의 제단 3.돈의 제단 4.활동의 제단 5.즐거움의 제단

### **3.잠에 취해 있는 가엾은 당신의 영혼을 깨워라**

도덕적 무감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뿌리 깊은 습관에 빠져 살면서 그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험한 죄에 빠진 채 계속 도덕적 잠을 잔다. 거짓말, 사기, 험담, 은밀한 죄, 인색함, 불평불만 같은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그런 잠에서 깨우는 날, 즉 심판의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잠에 빠져있다. 도덕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잠을 자는 것'이다. 영적으로 순박함을 잃어버리면 참신함과 뜨거움도 사라진다.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과와의 영적 교제도 거의 사라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거의 사라진다.

### **4.퇴보하는 신앙의 원인은 냉랭한 마음에 있다**

신앙이 퇴보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들 중 하나이다.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데에는 두 가지 주된 원인이 있다. 먼저는 우리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퇴보에 빠지기 쉽다. 큰 두려움에 빠지거나 사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나, 그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본능은 그에게 없다. 오히려 그의 본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성경 읽기나 기도 같은 경건 생활에 점점 싫증을 내는 것이 그의 본능이다. 결국은 경건생활에서 멀어지다가 신앙의 퇴보에 빠지는 것이다. 다음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약한 마음'이다. 신앙의 퇴보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세상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환경은 외적인 요인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신앙의 퇴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 마음이 식을 때,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실을 아신다. 신앙이 퇴보하면 하나님의 일에 흥미를 잃고, 점점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옛날의 죄보다 더 교묘한 죄에 빠진다. 신앙의 퇴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습관을 잃어버린 것이다. 신앙의 퇴보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상은 설교자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누구의 메시지든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

### **5.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 자꾸 생각해 보고 따져보는 본능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런 본능에 따라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하는 습관에 잘 빠진다. 우리는 지성을 가진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우

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를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도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중요한 선택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선택은 우리의 결정에 달렸다. 성경은 “너희가 오늘 날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말한다.

## 6. 우리의 영적 삶을 위협하는 세상을 거부하라

영적 무감각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고 보통의 그리스도인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꿰뚫어 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영적 삶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위협은 세 가지 방향에서 찾아온다. 첫째는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둘째는 이 세상의 신(神) 마귀요, 셋째는 우리 육신의 본능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 적이 누구이든 간에,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오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 7. 세상이 주는 승리와 패배에 연연하지 말라

승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승리의 개념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이란 문제나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에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실패가 따른다.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고 칭찬을 듣게 될 때 조심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취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아셨고, 온 힘을 다해 부지런히 그 길을 가셨다. 성공과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조심하라. 성공과 승리가 손에 들어왔을 때가 위험한 순간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위기의 순간이다. 승리와 패배에 대처하는 법 4가지가 있다. 첫째, 낙심했을 때의 판단을 믿지 말라. 낙심한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라. 둘째,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라. 주님을 위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적절한 때가 있다. 셋째,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살피라. 당신이 승리하든 실패하든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라. 하나님은 당신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자요, 방패요, 힘이요, 망대이시다.



## 8. 헛된 것에 묶여 있지 말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사도 바울의 교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박에서 구해주셨으므로 우리는 다시 속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속박은 미신,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음식이나 의복 같은 외형적인 것들, 그리고 기념일이나 절기의 형태로 찾아와 우리를 얽어맨다. 우리 머릿속의 작은 생각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분명히 보인다. 우리의 중얼거리는 소리조차 하나님 귀에는 큰 확성기를 통한 것처럼 크게 들린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속은 보신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외적 요소를 방해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 살면서 '영과 진리로'(요4:23)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이다. 어떤 종류의 죄든 간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는 기독교적인 자유가 아니다. 자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양심에 빠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다. 육신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발휘하자.

## 9. 빈둥거림과 분주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주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갖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인간은 수고하고 땅을 정복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우리 주님도 '일하는 사람'이셨다. 그러므로 빈둥거림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높은 뜻을 어기는 것이다. 빈둥거림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요, 유혹의 절벽 아래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주님은 부지런한 사람들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다.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서라. 실수할지라도 계속 시도하라.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과 결점으로 쓰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의 우편에 '빈둥거림'의 함정이 있다면 그 길의 좌편에는 '분주함'의 함정이 있다. 주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그분 앞에 나아갈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넓은 길이 놓여 있다. 그러나 그 길의 왼편에는 빈둥거림의 도랑이 있고 그 우편에는 지나친 분주함의 도랑이 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하나님의 넓은 길이 있다. 만사에 때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에너지를 충만히 채운 다음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일에 쏟아부어야 한다.

〈독서일기〉 이재익 목사(일본 니이가타교회)

## 식사기도

하나님! 이 밥 먹고  
밥값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밥 먹고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밥 먹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

[덧글]

**홍형표** / 밥값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저도 같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면애기** / 먹는다고 밥값 제대로 하면서 사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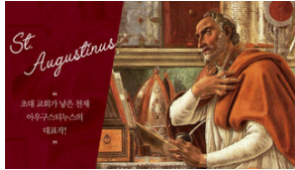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밥값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김문수** / 원래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요.

식사 기도 잘 보고 갑니다.

## 플라톤주의자들의 신을 보는 관점 비판



### 222. 정령들의 도움에 기대는 마술의 죄

아플레이우스는 자신이 마술을 한 혐의로 그리스도교 재판관 앞에서 탄핵을 받았다. 만약 마술적 행위가 신성하고 경건한 행위라면 마술을 금지한 법률을 비난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정령들이 마술을 행하는 것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스스로를 변호했다. 그런데도 정령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야 하는가?

### 223. 좋은 신들은 인간보다 정령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기뻐할까?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정령들에게 신들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도록 강요하고, 그로써 정령들은 인간의 소원을 신들에게 전하고, 신들로부터 충족된 그 소원을 인간에게 가져다준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절박한 이유란 무엇인가?

### 224. 신들은 정령들을 신하로 삼았는가?

플라톤 주의자들은 '신들은 지상에서 아득히 먼 천상에 있고, 공중은 천상과 대지 양쪽에 맞닿아 있기에 신들은 인간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언제 인간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정령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통탄할 주장인가! 도대체 신들이 언제 정령들을 신하로 삼았는가?

### 225. 정령들의 예배는 폐기되어야 한다

정령들은 참된 종교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을 포로나 종처럼 부리면서 자신들을 신처럼 믿도록 속여 예배를 받는다. 그러나 그들의 악덕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서 생각해 낸 거짓말이 '자신들은 신과 인간의 중계자'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철저하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

### 226. 헤르메스 트리스메기투스의 이상숭배에 대한 생각

이집트인 헤르메스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은 말하자면 신들의 몸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인간은 그 자신이 만든 것을 예배함으로써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고 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명예로운 인간이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이 예배함으로써 스스로 짐승의 지위로 내려앉은 것이다. -계속

## 하나님의 사랑 4

(Love of God)



### 29.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요4:24)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형태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꽃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찰스 스펀전은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어떤 사실에 대해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이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용서에 대해, 회개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지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동의(belief)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세에 그의 성령으로 전에 없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신 위대한 진리라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서 우리 하나님이요, 구주요, 인류의 구속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마음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믿음에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온몸을 한껏 뻗쳐서 바위에 기대어 남작 드러눕듯 그리스



도를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7296)

### 30. 하나님의 임재 훈련

지금부터 3백년 전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로렌스 형제가 남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제 책장에 4권이나 꽂혀 있습니다. 출판사도 모두 다르고 번역자도 다 다른 책입니다. 책을 한 권만 읽어서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가며 읽었습니다. 원본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번역을 할 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하는 중입니다.

어떤 번역은 원본을 '직역'하여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았고, 어떤 번역은 번역자 본인의 '임재' 경험이 글 속에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임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기계적인 번역을 한 것보다 '임재 경험'이 있는 번역자의 번역이 훨씬 매끄럽고 이해가 쉬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순종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재 연습' 또는 '임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상태가 되도록 자주, 부지런히 임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모아 부자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부지런히 시켜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동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도록 열심히 안내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7297)

### 31. 발에 안 맞는 신발

오랫동안 신었던 등산화가 낡아서 새로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는 발에 딱 맞았는데 등산을 하면서 온 신경이 불편한 등산화에 쓸렸습니다. "처음이니까 발에 적응이 안 되어서일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도 역시나 발이 불편했습니다. 이전 신발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잘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 신발인데도 나의 발은 그 신발을 불편해 했습니다. 그래서 딱 두 번 신고 지난 1년 동안 신발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는 싫은데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서 그냥 신발장에 넣어두게 되는 신발처럼 우리는 마치 너무 귀하고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에 안 맞는 비싼 신발처럼 여기

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일들을 멈추어야 할 것 같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는 것 같으며, 하나님께서 힘들고 부담스러운 어떤 의무를 지울 것 같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자주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에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장사를 하고 기술을 익히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긴 시간 근면과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무 노력 없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더 집중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7298)

## 32. 사단의 계략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전13:13)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수많은 기발한 계략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게 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너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주일도 맨날 빼먹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수시로 부끄러운 죄를 짓지, 전도도 못하지, 맨날 욕하고 거짓말을 하는 네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 그런 모습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사단은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처럼 속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사단은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이도록 하여 이 세상이 악한 것은 네 탓, 대통령 탓이라고 열을 내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지적한다’고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너나 할 것 없

이 다 사단의 계략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7299)

### 33. 하나님 사랑을 유지하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또한 ‘하나님 사랑’이 그다지 큰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바라고 얻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바라고 추구하며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면 속상해서 몇날몇일 기분이 우울할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강도를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 사랑이 예전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때 그 속상함과 슬픔이 돈을 잃었을 때보다 더 강한가요? 약한가요?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탄식이 흘러나온다면 아직 기회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길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으며,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사랑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의지는 곧 사랑과 마음입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금방 활활 불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호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붙드시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7300)

### 34. 하나님 사랑을 지속하기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시1:2)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까?(시40:8) ‘주여!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까?(시119:36)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말씀의 지혜와 거룩함)을 사랑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커피 원두에 대해 잘 알고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좋은 원두를 구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신실한 사람을

찾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를 빛나게 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그의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은 감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요일3:14,시154:4)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안타깝고 속상하다면, 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시34:18)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51:17)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301)

### 35. 사랑의 감각 키우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8) 나를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거대한 조물주가 먼지보다도 못한 작은 나의 존재를 아시기나 할까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천천히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기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요3:16)이심을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세상의 죄에 대해 보편적인 용서를 해주시고, 그 대가로 영생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신하신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자비로우심을 생각해 보세요.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던 나를 선택하여 구원받도록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고, 회개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첫눈에 반하는 불꽃 같은 사랑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집중할 때 서서히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조금씩 그분을 향한 내



사랑의 감각이 생길 때, 그분의 사랑도 점점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7302)

### 36.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와 자녀간의 따뜻한 사랑,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사랑, 친구들의 우정과 끈끈한 정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최고의 사랑이 한 방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더 큰,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살다 보면 부모나 자식의 허물이 보이고 불완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오해할 때도 있고 심하면 미워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는다거나 친구와 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약함을 위로하고 덮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낙심시키거나 실망시키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고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매일 매일의 안전과 나의 삶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아드님과, 당신의 성령과 당신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주셨으며 나를 양자로 삼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천사들과 더불어 나를 부르시고 환영하시어서 당신 나라로 불러 주셨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7303)

### 37. 만약에 내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생기게 하여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면 진정 행복할까요?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생각만큼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천에 사는 아무님은 집을 30채나 가지고 있는데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기자가 물으니 "누구는 집을 970채나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아주 가난뱅이지요." 집 한 채만 있어도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30채를 가지고도 가난하다니 허~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항아리 같아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행복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소유’라고 착각하지만,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이나 초부유층의 행복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행복의 근원이신 ‘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니 저절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밀천이 드는 것이 아니니 누구나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7304)

### 38. 달콤한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며,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즐거운 삶인가!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순간, 야망에 사로잡혀 탐욕스러우며 감각적이고 환상에 빠져있는 삶에서 벗어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천사와 같은 삶으로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이 세상에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고 그것은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축제와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축제의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말씀에 불을 지피고 불타오르게 할 때, 아, 그 말씀은 얼마나 맛있으며 그 기도는 또 얼마나 달콤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사랑이 말씀의 양념이 되어 내 영혼을 하염없이 배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더 살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맛있게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닌가? (7305) ©최용우

□여유일기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것들



700원짜리 붕어 (사진:최용우)

## 붕어빵

추석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지니 벌써 붕어빵이 나왔다. 조치원에 사시는 은퇴 목사님 붕어빵 포장마차가 금남면사무소 옆 두진아파트 앞에 작년 그 자리에 며칠 전부터 문을 열었고, 운동하면서 보니 로터리 근처에도 올해 새로 생긴 붕어 포장마차가 하나 보였다.

다른 간식을 딱 끊고 안 먹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붕어빵 1천원어치씩 사 먹는 것이 유일한 간식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다. 종일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기에 붕어빵 할아버지라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입에 거미줄 안 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오늘은 목사님 붕어빵 문을 안 열어서 처음으로 로터리 근처 붕어빵집으로 갔다. 그런데 한 마리에 700원이다. 헐~! 천원짜리 한장 주니 달랑 붕어 한마리 밖에 안주네~. 그래도 목사님은 천원에 두 마리인데... 진짜 물가가 겁나게 올랐네~.

## 참 고양이 좋아한다

오늘은 아내가 밥하기 싫은지 밖에 나가서 밥 먹자고 한다. 오케이~ 장군면에 곤드레밥을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어 갔더니 <직원이 도망가버려서 문을 못 연다>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그러게 직원들에게 평소엔 잘해 줘야지... 전에 왔을 때 로봇이 돌아다녔었는데 설마 로봇이 도망가버린 것은 아니겠지?

옆에 있는 고등어 생선구이 식당에 갔다. 아마도 우리처럼 곤드레 먹으러 왔다가 생선으로 바꾼 사람들이 많은지 대기 순서가 한 참 뒤여서 밖에 돌아다녔다.

생선 식당에서 키우는 새끼 고양이가 돌아다닌다.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이 반질반질하다. 안해가 반가워 뛰어가더니 고양이를 덤석 안는다. “아이고, 물면 어떡하려고...” 하여간 우리집 여성동무들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다.



## 고양이랑 반병씩

운동을 나가기 전 꼭 530ml 생수병에 물을 꼭 채워가지고 가방에 넣는다. 고가 다리 밑에 사는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물그릇은 항상 말라 있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지나가면서 길고양이 물그릇에 물을 반병씩 부어주고 간다.

주변에 물을 먹을만한 곳이 없어서인지 고양이가 얼른 달려와서 물을 할짝인다. 물 한 병으로 고양이랑 반병씩 나누어 먹는 셈이다.

나는 산행을 할 때도 항상 배낭에 2리터짜리 생수 한병을 통으로 넣어 가지고 간다. 물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나누어주기 위해서이다. 의외로 물을 충분히 가지고 산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자주 만난다.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처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뭐라도 나누고 싶는데 딱히 뭐가 없으니 물이라도 열심히 나눔 해야지.



## 모과

올해 1월부터 나 혼자 나가서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기 시작한 대평성서침례교회 목사님과 4주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아내는 집에서 9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에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지 딱 한번 외에는 아직까지 따라 나서는 않고 있다.

한 교회에 소속이 되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냥 주일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서 나간 것인데, 목사님도 딱히 크게 간섭을 안 하셔서 그동안은 참 좋았다.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특히 은둔 수사로 살아가는 나는 나를 드러낼 수도 안 드러낼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이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래 개방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것 같기는 하다. 올해는 교회 마당에 모과가 아주 많이 열렸다.



## 놀라운 성장력

아이들 방 창문 밖 틈새기에서 갓이 엄청난 크기로 자라고 있다. 지난 3월에도 같은 자리에서 갓이 자랐었는데 웅이 할머니가 마당의 잡초를 뽑으면서 같이 뽑아 버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크기가 지난번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더 큰 것 같다. 지난번 갓의 뿌리가 남아있어 계속 자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씨앗이 새로 자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갓은 겨자나 고추냉이와 같은 겨자과의 식물로, 갓의 종자도 겨자씨처럼 갈아서 겨자 대용으로 쓴다. 성경에는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인데도 나중에는 새가 앉을 정도로 크게 자란다고 나오는데, 저렇게 크게 자라는 것이 겨자과 식물의 특징인가? 이번에는 한 장씩 따 와서 씹을 싸 먹어보아야겠다. 어쨌든 '갓'은 하나님과 이름이 '동명'이라 어쩐지 맛있을 것 같다.





## 봉투 재활용

딱히 붕어빵을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작년엔 두진아파트 앞 붕어빵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접촉점으로 매일 붕어빵을 1천원어치씩 사 먹었다. 그렇게 안면을 트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계획은 실패했다. 그 할아버지는 은퇴 목사님이셨다.

올해도 붕어빵을 파시는데 이제는 붕어빵을 담아주는 종이봉투가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냥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에 담아 주세요.” 하고 재활용을 한다.

내가 쓰던 것을 내가 다시 쓰는 것인데 뭐가 어때랴. 그렇게 한 다섯번 정도 재활용하면 할아버지가 그냥 새 봉투로 바꿔 담아주신다. 딱히 내가 환경론자라거나 도덕군자여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붕어빵을 다 먹고 나면 봉투를 길가에 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가방에 넣었다가 꺼내는 것일 뿐이다.



## 행복은

황태탕 먹으러 갔다. 식당에 들어가는 길에 박아 놓은 맷돌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쪼그리고 앉아 사진을 찍는다. 맷돌짜를 위아래로 반달처럼 걸쳐 잡고 가운데 자갈 사이에서 올라오는 민들레가 들어가게 사진을 찍으니 근사한 사진이 되었다.

잠깐 사이에 맘에 드는 사진 한 장 찍으면서 마음이 행복해졌다. 행복은 늘 단순함 가운데 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은 그것은 발견하는 것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행복은 여기저기에 정말 많이 숨어있다.

행복한 삶이란 욕망을 충족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행복한 삶이란 의미를 찾는 삶이다. 맷돌의 윗쪽 아래쪽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는 것이다. 그렇게 좋은 것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 영적 전장터에서

세종고속터미널 버스 정차장 앞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호와의 증인' 소속 남녀가 서서 '파수대'를 나누어 준다. 그 옆에는 '신천지'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천지일보'라는 신문이 '교차로'와 함께 놓여 있다.



동네 골목길에서 아주머니 두 사람이 “우리는 대전 하나님의교회입니다. 이것 보시고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와 보세요.”하고 종이 한 장을 준다. 그래서 “아! 그 성추행으로 구속되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는 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말없이 그냥 갔다. 시청 앞에 어떤 스튜디오 카페가 있어서 잠깐 들어갔더니 포섭 목적으로 '신천지'에서 문을 연 카페였다.

가짜들은 이렇게 분주한데 '정통'이라는 기존 교회들은 이 피 튀기는 영적 전장터에 그 존재가 없다.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앞을 지날 때마다 불이 꺼져 있다. 어쩌냐 우리 정통 기독교..

## 겉쟁이와 생쥐

마당 국화 화분 밑에 생쥐가 한 마리 죽어있었다.

“이게 뭐야. 생쥐가 왜 여기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며칠 동안 길고양이 '겉쟁이'가 창밖 화분 옆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며 앉아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어디서 밥을 먹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가끔 우리 집에 온다.

아내는 “우리 집까지 올 정도면 많이 굶은 거야. 밥을 줄까?” 베란다 문을 열면 겉쟁이가 '하악'거리며 공격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밥 주려고 하는데... 에이, 빈정 상해서..”하고 안 준다.

하악거리는 거야 길고양이의 습성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자기가 왜 밥을 못 얻어먹는지 모르는 겉쟁이가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고 쥐를 잡아다 놓은 것 같다. 고양이가 쥐를 가져다 놓는 것은 먹고 싶은 것도 꼭 참고 갖다 놓는 것이라는데...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 ▲제579회 비학산262 (일출봉252m)

핸드폰 트래글GPS 프로그램을 켜놓고 산에 오르면 산 정상마다 있는 बै지를 '띠리링' 하고 내려주면서 정상 인증을 해준다. 비학산에는 비학봉, 일출봉 두 곳에 बै지가 있다. 내 트래글 아이디는 <100대 산등산>이다.



다른 산에도 가서 인증 बै지를 받고 싶는데 아직은 아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허락을 안 해준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비학산만 오르고 있다.

오늘까지 비학산을 총 262회 올랐고 बै지는 230개를 받았다. 올해는 39회를 올랐고 बै지도 39개를 받았다.

나보다 비학산을 더 많이 오른 사람 있을까? 궁금해졌다. 비학산 트래글 배지 순위 확인해 보니 내 순위는 2등이다. 1등은 누구냐?



<부퇴량> 아저씨다. 비학산 बै지 608개 혁! 압도적인 1등이시네. 흥! 자존심 상해. 가끔 산에서 만나는 분인데 이렇게 많이 오른 줄은 몰랐다. 이분은 비학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안 가는 산이 없는 만능 산꾼이시다. (2022.10.5.)

## ▲제580회 중광산 비학산263 (일출봉252m) 2022.10.12

## ▲제581회 비학산264 (일출봉252m) 2022.10.19

## ▲제582회 비학산265 (일출봉252m) 2022.10.27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 ① 소설(小雪)에 비가 내리네

첫눈이 내린다 하여 소설(小雪)인데 비가 내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어감이 없으니 아마도 이 비 그치면 많이 추워질 것입니다. 할머니가 마당의 아궁이에 불을 때서 콩을 삶는군요. 콩 삶는 냄새가 구수합니다. 맛 좋은 된장과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메주를 띄울 때도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온도 조절과 공기의 흐름과 햇볕에 얼마를 쪄이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안방 시렁에 메주를 주렁주렁 달아서 건조시켰는데 구리구리한 메주 냄새가 방 안에 베어서 오래갔던 기억이 납니다. 집집마다 메주 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그 맛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맛이 나는 합성식품을 사서 먹고사는 세상입니다.



## ② 표지사진 이야기

<어머니의 성경쓰기 모습이 볼 때마다 안스럽다. 책상에 앉아서 하시라 해도 “이게 더 편하다.” 하시는데 과학적 효율성과 습관적 생활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

하늘교회 최광열 목사님의 어머니이시며 성함은 백경애 어머니입니다. 습관처럼 성경 쓰기를 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다. 1929년생이며 노년에 중국 동포사회에서 유치원 원장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셨다.

## ③ 도서출판 소식

신간 <들꽃편지6권 금계국꽃호> 506쪽 21000원 -11월15일 출간  
63권 <들꽃편지5권 참꽃> 528쪽 21900원 -10월19일 발행  
62권 <일상의 기쁨>(시집시리즈10권) 210쪽(올컬러) 13400원 -10.4일 발행  
61권 <들꽃편지4권 동자꽃> 510쪽 21300원 -9월13일 발행  
60권 <들꽃편지3권 산부추꽃> 508쪽 21100원 -8월 30일 발행  
59권 <웃긴일기>(일기시리즈13권) 396쪽(올컬러) 23800원 2022.6.29.발행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57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22.10월 재정결산

2022년 10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낙규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경구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정호숙 조정옥 지경희 최경자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28분이 1,05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2.11.19일 현재 7380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64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새로 나온 책

## 들꽃편지 제6권 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6권 금계국꽃호  
최용우 편집 506쪽 21,0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32년 동안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그동안 펴낸 〈들꽃편지〉를 약 500쪽 분량으로 합본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들꽃편지 제6권〉은 2000.2월 제232호부터 2001.10월 제249호까지 1년 9개월 동안 발행한 1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북 보은군 대청호 상류에 있는 ‘갈릴리마을’ 공동체에서 섬을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돕는 환대 사역을 하던 때입니다. 저는 학교 2층 교실 한 칸에 마련된 책방에서 열심히 글을 쓰며 〈들꽃편지〉를 한 달에 두 번씩 만들고 주일에는 〈들꽃피는교회〉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아내는 한남대학교 대학원에, 큰딸은 판암초등학교에, 작은딸은 리라우치원에 다니며 날마다 대전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대청호 마흔아홉 구비길을 꼬불꼬불 40분씩 버스를 타고 멀미도 하지 않고 씩씩하게 통학을 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최용우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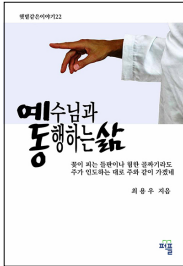
## 예수 나의 형통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조건 형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예수 형통 글 모음  
12,300원 328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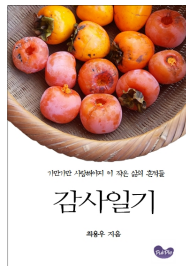
##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때 주님은 나를 업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네. 288편의 하나님과 동행 글 모음  
14,300원 320쪽 펴플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288편의 예수 동행 글 모음  
14,300원 320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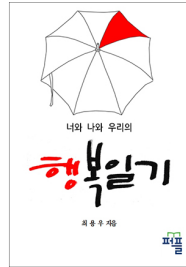
## 감사일기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삶의 흔적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를 한 개씩 주워 모아 365개를 바구니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게 다 감사꺼리라는 것을 아는 재미있는 책!  
14,100원 392쪽 펴플



## 햇빛일기

황금을 떠가는 파란 하늘에 햇빛이 밝아 세상이 보송보송 부드러운 공기를 마시니 또 하루를 참 잘 살았구나. 주변의 사물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고 사색한 366편의 순수한 기록  
14,100원 396쪽 펴플



## 행복일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이 세상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숨어있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바꼭질처럼, 때로는 놀이처럼 일년 동안 열심히 찾은 365편의 따뜻한 행복글 모음  
14,200원 396쪽 펴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mailto: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46호 \*발행. 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